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2분기 사회서비스 최신 동향 안내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LATEST TRENDS IN SOCIAL SERVICES
FOR THE SECOND QUARTER

Contents

01	사회적 고립의 심각성과 필요성 제기	2
02	해외 사례와 연구 동향	5
03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	9

01

사회적 고립의 심각성과 필요성 제기

사회적 고립의 심각성과 필요성 제기



사회적 고립: 새로운 복지 이슈로의 부상

전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디지털화, 팬데믹 이후의 여파가 겹치면서 ‘사회적 고립’은 복지 정책의 새로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1인 가구 비중은 35.5%, 전북의 1인 가구 비중은 37.7%를 넘으며, 전 국민적으로 고립과 단절의 위험이 상존하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은 상시적인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3년 기준 은둔 고립 청년(19세~34세 이하) 규모는 최대 540,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정서적·사회적차원뿐 아니라 생명 위협으로도 직결됩니다.

- 청소년 자살률은 전년 대비 9.4%
- 2023년, 20대 자살률은 22.2명으로 10대(7.9명)의 약 3배 수준
- 한국은 2023년 기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10만 명당 27.3명)

한편 중장년층의 고립 또한 팬데믹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는 고립 문제가 특정 세대를 넘어 전 연령에 걸친 복지 사각지대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고립의 심각성과 필요성 제기



사회적 고립의 문제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삶의 질 저하·정신건강악화·사회탈락의 전 단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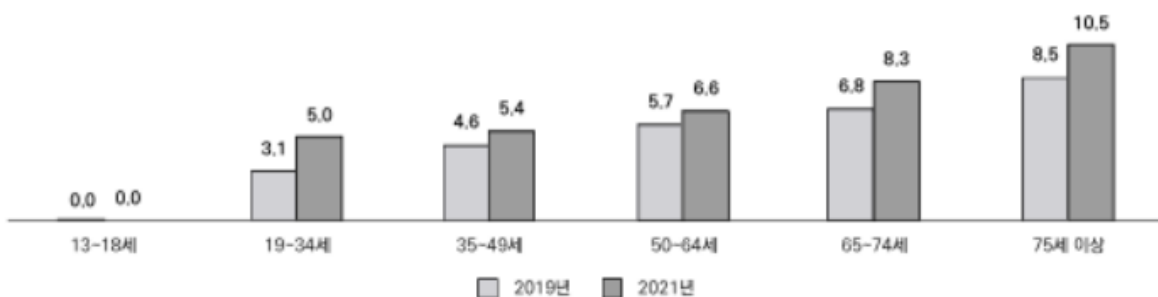
고립 경험자의 자살 시도 위험은 일반인의 4~17배에 달하며, 우울증·정서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연대 약화, 사회적 비용 증가, 노동력 상실 등 국가 전체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대응이 시급합니다.

[그래프] 연령대별 고립 인구 출현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위기 취약 청년의 현황과 정책 과제」

(단위: %)



02

해외 사례와 연구 동향

해외 사례와 연구 동향



일본 - ‘고독사’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 문제점 및 현황

- 일본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로, 1인 고령 가구의 증가와 가족 해체로 인해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 특히,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는 일본 전역에서 약 146만 명(2022년 내각부) 이상으로 추정되며, 40~50대 중장년 은둔 증가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됨
- 사회적 낙인, 장기 실직, 정신건강 문제, 가족 내 방임 등 복합 요인이 문제를 고착화함

■ 대응 전략

- 고독사방지기본법 제정(2021): 지역사회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고립 예방 사업 확대: 방문 활동, 전화 체크인, 지역 봉사단 연계
- 고립 은둔 실태조사 및 히키코모리 지원 센터 운영: 각 지자체가 상담, 프로그램, 취업 연계 등을 실시
- ‘8050 문제’ 대응 정책 강화: 80대 부모와 50대 자녀가 함께 은둔하는 구조에 대한 특별 대책 수립
- 방문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고립 위험군 실태조사 실시
- 편의점, 가스회사 등 민간 기업과 연계해 고독사 조기 감지 시스템 도입 (ex. 며칠간 전기 사용이 없으면 자동 경고 등)

해외 사례와 연구 동향



영국 - ‘외로움’은 국가 문제, 고립 예방은 공동체 기반

■ 문제점 및 현황

- 영국은 중장년·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를 정신건강과 삶의 질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함
- 900만 명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며, 특히 고령층 12명 중 1명은 “말벗이 없다”고 보고됨
- 코로나19 이후 고립된 청년 및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가 주목됨

■ 대응 전략

- ‘외로움부(Minister for Loneliness)’ 신설(2018)
: 세계 최초로 고립·외로움대응을 국정 과제로 설정
- Chatty Café Scheme: 말벗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지정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도록 장려
- 공공서비스 연계: 지역 의사, 도서관, 주민센터에서 고립 위험군을 연결하고 대화·모임 유도
- 민간 파트너십 확대: 자원봉사 단체, 비영리기관과 함께 외로움 해소 캠페인 진행
- 지역 자원과 연결되어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 도모

해외 사례와 연구 동향



캐나다 – ‘주거 불안정’과 고립이 복합 위기로

■ 문제점 및 현황

- 캐나다는 노숙인, 정신질환자, 은둔형 청년 등 복합 취약군에서 고립 문제가 만연함
- 고립은 주거 불안정과 정신건강, 실업 문제와 결합되며 삶의 총체적 위기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함
- 코로나19 이후 고립된 청년 및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가 주목됨

■ 대응 전략

- **Housing First 정책**: 주거 안정이 고립·은둔해결의 출발점임을 전제로, 선주거-후지원 원칙 적용
- 정신건강 치료, 직업 훈련, 공동체 연결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기반의 ‘Peer Support’ 프로그램 운영: 당사자간 상호지지 및 사회 복귀 유도
- 청년대상지원 확대: 15~29세 청년의 고립 예방을 위한 상담, 커뮤니티 참여 프로그램 강화
- 복합 위기 대상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고립군을 발굴해 보건, 주거, 일자리 연계 등 맞춤형 대응

03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



정의 및 현황

최근 한국 사회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가족 해체 등의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 일상적 인간관계와의 단절 상태를 의미하며, 정서적 지지 부족, 정보 격차, 서비스 접근 제한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령층, 중장년층, 1인 가구 등은 사회적 연결망이 약화되면서 우울감, 무기력, 고독사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고립 상태는 개인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돌봄 공백·복지사각지대 확대 등 공공영역의 과제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혼자 있음'을 넘어서, 사회적 자원과 관계망에서 배제된 상태이며, 이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역사회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지자체별 서비스 격차,
접근성 제한

외로움, 우울, 자살 위험 증가
→ 삶의 위기 전환

01
공공 돌봄의
불균형

02
위험군의 다층화

03
정서적·
사회적 붕괴

04
복지체계 단절

은둔형 청년, 1인 중장년,
독거노인 등 세대별로
고립 양상이 다양화

고립 위험군이 제도 밖에서
장기 방치되는 구조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



대응 전략

■ 공공부문 중심 대응

- 고립예방센터 설치 및 확대: 전국 지자체 중심으로 고립군 발굴 및 돌봄 연계 역할 수행
- 사례관리 체계 강화: 고립 발굴 → 개입 → 회복까지의 연속성 있는 지원 추진
- 전담 인력 확충: 고독사 예방팀, 복지전담공무원 등 현장 인력 보강
- 이웃연결단 운영: 주민 주도형 고립 예방 활동 조직

■ 민관협력 모델 확대

- '모두의 친구' 활동가 양성: 은둔·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정기적 교류를 촉진하는 지역 활동가
- '아름다운 동행 가게' 운영: 지역상점 기반의 돌봄 감시망, 생활 속 접근성 확보
- 커뮤니티 중심 연결망 구축: 지역 내 복지기관, 상점, 주민이 연결되는 통합 네트워크

■ 주민 참여 기반 강화

- 이웃 주도 모델: 지역주민이 고립 예방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확대
- 자조 모임, 소모임 활성화: 고립된 개인이 자연스럽게 공동체와 연결되도록 유도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돌봄 구조 결손' 문제로 이해해야 하며,
민관 협력과 지역 중심 대응이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 「사회적 고립·은둔청년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발표
(2023.11 / 여성가족부)
- 배경: 은둔형 외톨이 증가
특히 청년층의 고립 장기화 심각성 부각
- 주요 내용
 - 전국 청년 고립 실태조사 실시 (3년 주기)
 - 은둔청년 발굴-상담-지원 전 과정 매뉴얼 마련
 - 커뮤니티 공간 제공, 심리상담, 자립준비 프로그램 지원
 - 기존 정책(자립지원청년·학교밖 청소년 등)과 연계



보건복지부 중심의 복지 고립 예방정책

- 2024년부터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시범사업」 추진
- 대상: 고립위험이 있는 1인 가구, 노인, 청년 등
- 주요 내용
 - 위기정보 기반 데이터(독거·고령·질환등)로
고립군 선제 발굴
 - 찾아가는 상담·심리치료·일상생활돌봄 서비스 제공
 - 자살위험군, 중복위기가구 등 복합고립군 통합관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과 연계

우리나라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청년 대상

- 「서울청년기지개센터」
 - 방문상담 → 일상 회복 → 사회 진입까지 단계별 회복 프로그램
 - 커뮤니티 참여, 자조모임, 진로탐색, 자립연결
- 「전북특별자치도청년미래센터」
 - 가족돌봄청년 지원
 - 고립은둔청년 지원
 - 공동생활 프로그램 지원, 상담, 자조모임 등



중장년 대상

-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2024~)
 - 실직·이혼·질병 등으로 고립된 중장년층 대상
 - 상담·정서지원·일상관리·취업연계 통합 제공
- 지역 중심 커뮤니티 프로그램
 - 서울시 「50+캠퍼스」
 -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등
 - 자기계발, 봉사, 문화활동 통한 사회적 연결 회복

우리나라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노인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전국 노인 대상 정기 방문·안부확인·병원동행·사회참여지원
 -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및 지속관리 체계화
- 「스마트 안심케어 기술 도입 사업」
 - IoT 센서·활동감지플러그 활용해 고위험 노인 모니터링
 - 지자체·민간협력으로 사고 예방 시스템 운영



기타 정책 및 시스템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행정안전부)
 -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빅데이터로 위기가구 포착
 -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복지연계 상담 진행
-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
 - 은퇴 중장년층에게 봉사활동/멘토링 중심 일자리 제공
 - 자존감 회복 및 사회관계망 회복 목적

청년미래센터 · 중장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소개



청년미래센터

청년미래센터는 **청년 세대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공간**으로, 고립 청년·미취업 청년·진로고민 청년 등 다양한 상황의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심리상담, 진로 탐색, 자립생활 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청년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특히 은둔형 고립청년에게는 찾아가는 상담과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청년미래센터는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 속에서 희망과 관계를 회복하는 **사회적 성장 거점**입니다.



중장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중장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퇴직 이후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다시 한번 활기차게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인생 재도약 지원 공간**입니다.

중장년층의 다양한 변화와 전환기를 함께하기 위해 진로 재설계 상담, 심리·정서적안정 지원, 재능 나눔형 사회공헌 활동, 커뮤니티 기반 소모임 등 **생애 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중장년층이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 **자기 주도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맞춤형 복지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